

			원 장
담당	연구 책임자	센터장	2023.10. 6.

국외출장보고서

「유럽범죄학회 EUROCRIM

2023 ANNUAL CONFERENCE

참석」

2023. 9. 4. ~ 9. 10. (6박 7일)
이탈리아 피렌체

한국형사 · 법무정책연구원

국외출장 보고서

I. 출장개요

1. 출장자

- 이선형 부연구위원(헌사법무디지털 센터 AI·법정책팀)

2. 목적

- 2022년 수행한 자살 과제와 2023년 현재 수행중인 마약 과제의 데이터 분석 결과로부터 자살과 마약문제에서 약물사용의 관계를 발표함(발표제목: Characteristics and Illegal Distribution of Suicide-Related Substances in South Korea). 연구 결과 발표를 통해 자살 및 마약사용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연구 발전과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법무수요조사는 연속과제를 기획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영역에서 일부를 선택하거나 제외하였던 영역을 포함시켜 특정 영역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려는 계획이 있음.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범죄피해조사와 차별화된 방식으로 조사영역과 내용의 개발이 필요하므로 법무수요와 관련하여 회복적사법, 피해자 지원, 청소년 문제 등 영역에 대하여 어떤 사법적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지 관련 세션 발표로부터 자료를 확인하고자 함. 본 학술대회에서의 정보는 차후 법무수요조사의 방향성과 문제의 유형별 범위를 확정하는 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음
- 마약이 한국에서 심각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가장 쟁점인 범죄가 된 것처럼, 현재 해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범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임. 본 학회에서는 다양한 범죄 관련 세션이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출장에서는 마약/약물(Drug), 범죄두려움(Fear of Crime), 방법론(Methodologies in Criminology), 사이버범죄(Cybercrime)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3. 출장지

- 이탈리아 피렌체

4. 출장기간

- 2022. 9. 4. ~ 9. 10. (6박 7일)

II. 출장내용

1. 출장 일정

일자	날짜	세부일정	비고
1일차	9. 4. (월)	[출발] 인천공항 (23:30, 한국시각)	터키항공 오버부킹으로 다음 항공편 탑승. 로마에서 피렌체로 기차 이동
	9. 5. (화)	[도착] 이탈리아 피렌체 (22:40, 현지시각)	
2일차	9. 6. (수)	[15:00~16:00] 등록 및 발표장 사전 방문 [16:00~17:15] Analysing and responding to illicit drug markets 세션 참석 [17:30~18:45] WGEDP Panel 1. Illicit drug markets 세션에서 발표 [20:45~22:45] Welcome Reception 참석	
3일차	9. 7. (목)	[9:30~10:45] WGEDP panel 2: Drug harm reduction 세션 참석 [12:30~13:45] Cybercrime Working Group - Tackling cybercrime & Cybercriminals 세션 참석 [15:30~16:45] Digital Transformations of Illicit Drug Markets: Reconfiguration and Continuity 세션 참석 [18:30~19:45] Policing in a digitalized world 세션 참석	
4일차	9. 8. (금)	[8:00~9:15] Illicit drug use and offending 세션 참석 [9:30~10:45] Data-led and Digital Policing: A Global Perspective 세션 참석 [13:30~14:45] Methodologies in online settings 세션 참석 [16:30~17:45] Digital Victimization and other issues 세션 참석	
5일차	9. 9. (토)	[출발] 이탈리아 피렌체 (9:00, 현지시각)	피렌체에서 로마로 기차 이동(기차 1시간 지연 출발) 후 비행기 탑승
	9. 10. (일)	[도착] 인천공항 (15:30, 한국시각)	

2. 출장 세부내용

(1) 9월 6일

- [15:00~16:00] 등록 및 발표장 사전 방문
- 학회 등록 및 컨퍼런스 참여 증명서 수령



- [16:00~17:30] Analysing and responding to illicit drug markets 세션 참석
- 본 세션에서는 불법 마약 시장과 잠재적인 대응 전략을 주제로 불법 마약 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 정책, 혁신적인 접근법 등이 소개되고 메릴랜드 대학교의 Peter Reuter가 토론자로 참여함. 캐나다에서 펜타닐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2016~2018년)가 지속되는 가운데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밴쿠버의 헤로인 밀매 수익 동향을 분석한 연구, 암스테르담에서 마약 딜러를 퇴출시키기 위한 개입의 영향을 평가한 연구, 게임 이론을 사용하여 위험과 가격 모델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시하며 불법 마약 시장의 역학 관계를 새롭게 조명한 연구, 다양한 법 집행 기관의 개입에 직면한 마약 밀매 조직의 회복력을 조사한 연구들을 발표함
- [17:30~18:45] WGEDP Panel 1. Illicit drug markets 세션 발표
- 본 세션은 마약 및 약물 유통/거래에 관한 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개의 연구

가 발표됨. ‘An Ethnographic Examination of the Glocal Drug Trade in Turkey’는 터키가 최근 남미산 마약 거래 중심이 된 배경과 마약상들의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새로운 범죄 문화를 추구하는 경향을 발표함. 두 번째 연구인 ‘A social drug life: drug distribution in modern day society as a continuum between digital and physical relations’는 노르웨이의 마약 거래 경험자 100명을 인터뷰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마약거래의 특성을 밝혀냄. 온라인 플랫폼이 마약 거래를 활성화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오프라인에서의 관계성/상호작용성이 마약 구매와 판매 방식을 결정함을 보여줌. 세 번째 연구 ‘Can I pay with Bitcoin? Motivations for using cryptocurrencies in online cannabis markets’에서는 대부분 온라인 대마초 거래 플랫폼에서 암호화폐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암호화폐를 허용하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의 경우에는 다양한 결제수단을 제공하여 구매가능성을 높이고 있음을 분석함. 네 번째 연구인 ‘Liminal spaces, seasonal faces: challenging dominant drug market narratives via an exploration of naturally occurring magic mushroom markets’는 영국 켄트지방에서 환각버섯의 재배와 유통을 분석하여 마약거래가 반드시 폭력조직, 도덕적 부패, 금전적 동기와 연관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새롭게 침투하는 마약 공급시장의 위험성을 논의함. 다섯 번째 연구인 ‘Mapping the UK image and performance enhancing drugs market on social media: Facebook and Instagram’는 IPED (또는 PIED) 약물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광고 공통점과 차이점 등 표현되는 특성을 설명하고, 광고의 디지털화가 기존의 조직적 유통을 넘어 독립적인 리셀러 방식으로 변화하였음을 논의함



- ‘Characteristics and Illegal Distribution of Suicide-Related Substances in South Korea’는 한국에서 자살 및 자해 시도자 사이에서 약물 사용(T42)이 증가했고, 이러한 배경에서 자살 관련 약물의 온라인 유통 특성을 분석함. 온라인에서 자살약이나 안락사약과 유사도가 높은 물질 15가지 중 T42는 6가지, 마약은 2가지임. 이 외에도 프로포폴, 펜타닐, 엑스터시 등 최근 한국에서 자주 언급되는 마약류도 발견됨. 여전히 한국에서 자살은 ‘사망’에 집중되어 있고 약물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7%에 불과하여 자살과 약물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는 문제를 발표함. 한국에서 자살이 많은 이유, 자살 사망보다 자살시도자에서 약물 사용이 많은 이유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 논의함



[발표자료]

Characteristics and Illegal Distribution of Suicide-Related Substances in South Korea

Sunhyoung Lee
(Data Scientist/Researcher,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KICJ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Table of Contents

1. Research Background
2. Naver Analysis
3. Twitter Analysis
4. Discussion

Research Background

- Regulating the types and scope of items harmful for suicidal purposes
 - Toxic effects of carbon monoxide (T58), toxicity of herbicides/pesticides/fungicides (T60)
- Substance use as indicated in suicide mortality statistics has actually decreased
- Increasing use of different substances among groups of individuals attempting suicide or self-harm

3

Status of Self-Harm/Suicide Attempter's Used Substances (NEDIS data)

- T42(Poisoning by antiepileptic, tranquilizers, sleeping pills, and antiparkinsonian drugs)



=> Analysis of the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Suicide-Related Substances Online

4

Search Portal 'NAVER' (2021)

1. 'Shopping' Category

	Substance	Number of search results	overseas direct purchasing
T58	Charcoal	3,647	15
	Briquet	661	-
	Herbicides	509	276
T60	Pesticides	8,077	1,040
	Fungicides	15	15

2. Online Cafe

Substance	Number of search posts
Iminostilbenes	6
Barbiturate	123
Benzodiazepine	479
Tranquilizers	4,501
Sleeping pills	21,906

Examples

불면증이예요 혹시 수면제 처방은 어디병원에서해주나요?

I have insomnia. Which doctor can prescribe sleeping pills for me?

가장정신과에서 처방 가능합니다.
수면제 처방되는 병원, 아로마테라피를 사용하고 있거나
임도스틱 처방이요??
수면제 처방 병원 받아볼까 고민중인데
병원 추천부탁드립니다.

이미 처방받은것은 갈아먹습니다.
주변병원에 갈아먹으세요.^^

... (more replies) ...

I direct messaged you.

It prescribes by the internal medicine.

수소가스 5%, 질소가스 95% 혼합가스 342,000원

5% + 95%

수소가스 5%, 질소가스 95% 혼합가스 342,000원

수소가스 5%, 질소가스 95% 혼합가스 342,000원

수소가스 5%, 질소가스 95% 혼합가스 342,000원

개인이 구매 가능하시고, 고압가스 판매장 에서 질소알루미늄 용기 충전 을 요청 하시면 됩니다.
가스충전 은 개인 이 용량을 확실수 없고 고압가스 판매소에 의뢰 하시면 됩니다.^^

You can buy it individually, and go to the gas store and ask for charging.

Search Term Trends



- In 2020, research indicated that 80.9% of suicide-related information was on social media, with Twitter accounting for 92.3%

7

Twitter Analysis Overview

- Data: 2021.12.10~2022.01.09 (30 days)
- Twitter API Academic Research Access
- Collected 9,200 tweets
- Morpheme analyzer: Twitter(OKT)
- Drug(1,810), Joint Suicide(1,128)
- Analysis of cosine similarity for the word 'Suicide'

Keywords
suicide pill
euthanasia drugs
suicide & sleeping pills
die together
joint suicide
easy way to die
suicide attempts
suicide methods
suicide & sleeping pills

8

Frequency Analysis of 'Drug' Data

- Substance names are 7 of the top 20 in frequency
- Frequent use of transactional words such as 'price', 'shipping', and 'sale'
- Methods of substance use or suicide-related terms like 'self-harm' and 'depression' also appear frequently

Words	Frequency	Words	Frequency
Euthanasia drug	1,091	Sleeping pills	263
Methods	960	Euthanasia	260
Purchase	900	Attempt	251
Buy	555	Chloroform	211
Potassium cyanide	468	Shipping	186
Sale	467	How to use	178
DBFG(direct buying of foreign goods)	416	Nembutal	132
Price	376	Self-harm	123
Pentobarbital	344	Nicotine	116
Direct dealing	282	Depression	107

9

Frequency Analysis of 'Joint Suicide' Data

- Substance names are 2 of the top 20 in frequency
- The relationship in joint suicide such as 'husband', 'couple' and 'family'
- Non-consensual murder-suicide Information: 'Kill', 'Murder'
- Information on finding someone to commit suicide: 'Check', 'Alone', 'Let's'

Words	Frequency	Words	Frequency
Pain	110	Kill	31
Botulinum	74	Depression	31
People	71	Man and woman	28
Life	68	Oath	28
Love	62	Check	27
Husband	57	Alone	25
Couple	45	Potassium cyanide	25
Celebrity	44	Choice	24
Hard	32	Last	23
Each other	31	Murder	18

10

Substances List

- Six T42 substances and two narcotics in results with similarity values above 0.7
- Three narcotics in results with similarity values above 0.7
 - Propofol
 - Fentanyl
 - MDMA(Ecstasy)

Keywords	Similarity
Briquet	0.863
Pufferfish Venom	0.839
Botulinum	0.833
Agrochemicals	0.829
Potassium Cyanide	0.819
Ketamine	0.809
RushPopper	0.809
Barbiturate	0.806
Stilnox	0.799
Benzodiazepine	0.793
Pentobarbital	0.772
Nembutal	0.765
Sleeping Pills	0.745
Chloroform	0.729
Nicotine	0.722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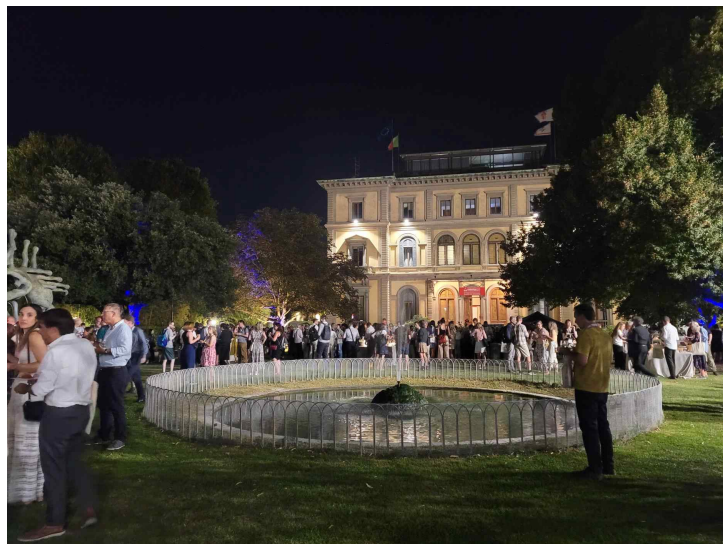
Conclusion

- Drugs account for only 7% of substance use suicide deaths (Mostly gas or carbon dioxide poisoning)
- **Suicide attempts or self-harm vs Deaths** : Focus on causes of death rather than survival
- Psychotropic drugs and narcotics accounted for half of the substances mentioned online in suicide-related online distribution information
- The use of drugs in suicide attempts and self-harm has been linked to the recent rise in drug use in Korea society: increasing severity of drug dealing online/SNS
- Necessity for improved monitoring and enforcement of illegal drug distribution to prevent suicide

12

○ [20:45~22:45] Welcome Reception 참석

- 같은 세션에서 발표한 연구자들과 서로의 연구 분야를 소개하고 약물 사용, 한국 자살 현상 등에 대하여 논의함. 세션에서 발표자 모두에게 한 질문 중 온라인 및 오프라인 약물 또는 마약거래가 구분이 되는 것인지 또는 온라인이 오프라인 마약 거래를 더 활성화 하는지를 묻는 내용이 있었음. 이 부분에 대하여 발표자마다 의견이 달랐는데, 의견이 달랐던 이유는 각 나라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성화하는 정도 차이에 따른 것이 가장 컸음. 한국, 영국, 미국, 중국은 온라인 플랫폼이 불법 거래에 악용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화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유럽은 아직까지 오프라인 거래가 더 만연한 특성이 있었음. 또 다른 질문 중에 마약의 종류에 따라 오프라인과 온라인 거래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 이 내용도 발표자마다 의견이 달랐음. 유럽 발표자들에 따르면, 유럽은 마약의 종류보다 마약 거래의 주 목적(밀매, 단순 투약 등)에 오프라인 거래와 온라인 거래의 차이가 나타나며, 점점 남미에서의 밀수가 증가하고 미국의 마약 패턴을 따라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함
- 세션에 참석한 대만 국적의 연구원은 캠브리지 대학의 연구원에서 약물중독을 연구하고 있는데, 한국의 자살과 중국의 자살 현상이 비슷하다고 설명함. 특히, 약물이나 마약 중독자들 사이에서 자살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어 약물사용과 자살과의 관계에 인과성이 있는지 질문함. 본 발표는 자살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약물을 사용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데, 약물 중독자들에게서 자살시도가 증가하는 것도 자살현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함. 자살 시도자들이 약물을 이용하는 데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약물 구매가 점점 더 쉽고, 다른 물질보다 고통이나 시간이 덜 든다는 점 등이 자살 물질로 선택되는 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의견을 제시함



(2) 9월 7일

○ [9:30~10:45] WGEDP panel 2: Drug harm reduction 세션 참석

- 이 세션에서는 약물 사용과 관련된 위험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DCR(Drug Consumption Rooms) 도입과 법률 개정의 필요성, 헤로인 중독자 치료자를 위한 heroin assisted treatment (HAT)의 효과, 페스티벌에서 마약 사용 억제를 위한 보안 역할, 약물 과다복용 방지를 위한 take-home naloxone (THN)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하여 논의함. 발표 내용 중에는 엑스터시를 판매하는 상점을 설치하여 판매조건에 대한 실험연구를 한 사례도 있었음



○ [12:30~13:45] Cybercrime Working Group - Tackling cybercrime & Cybercriminals 세션 참석

- 본 세션에서는 합법적 기관을 사칭하여 이메일을 보내는 피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기메일과 정상메일을 구분하는 대안을 실험을 통해 연구한 내용이 발표됨. 흥미로운 것은 실험 참가자들의 행동적 특성에서 이메일의 본문을 더 오래 볼수록 더 잘 식별하였고, 인구사회학적 변인에서는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이메일 식별을 정확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남. GPS 추적이 불가능한 쉼도우폰 대응에 관한 연구 (Encrypted Phones and the Judicial System: The View From Within)에서는 범죄 추적을 피하기 위해 GPS 추적이 불가능한 암호화된 휴대폰이 판매되고 있는 현황을 소개하고 새로운 사법 시스템과 기술 도입을 논의함. 이 외에도 헝가리에서의 아동 착취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형사 사법 시스템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성적인 활동에 대한 동의 연령, 포래의 압력 등)에 대하여 논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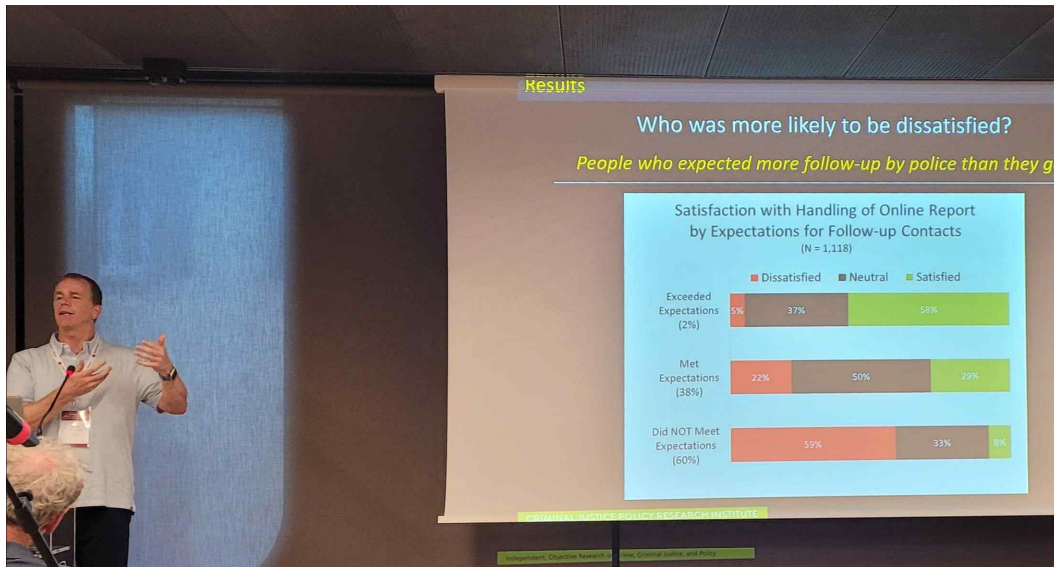
○ [15:30~16:45] Digital Transformations of Illicit Drug Markets: Reconfiguration and Continuity 세션 참석

- 이 세션에서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불법 마약 시장의 운영 방식의 변화에 대한 주제로 토론함. 구매자와 판매자가 점점 더 많은 디지털 기기와 익명성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마약을 주문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되었고, 사용자의 디지털 흔적은 거의 찾기가 어렵으므로 마약 규제 정책의 새로운 시각을 강조함. 불법 마약 시장의 디지털 혁신이 기술적으로 매개된 시장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상호작용을 재구성하는 현상과 문화, 경제, 정치, 법적 영역에서 마약 시장과 관련된 내재된 결합(연결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함. 불법 디지털 시장이 사회 구조와 권력 관계 전반에 내재되어 있다는 의미로,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범죄 동기가 내재화되지 않게 하는 사회적 장치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 [18:30~19:45] Policing in a digitalized world 세션 참석

- 이 패널은 기술이 경찰과 치안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로 구성됨. 기술이 경찰과 시민 간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 다양한 기술의 윤리적, 사회정치적 의미, 기술 도입에 대한 경찰관의 견해와 인식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짐. 이 패널의 발표 중 'Online crime reporting: A new threat to police legitimacy?'는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이용한 1,200명의 재산범죄 피해자 설문조사 결과로부터 온라인 신고 처리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함. 설문조사 결과에서 대부분의 응답자는 온라인 신고 시스템에 불만족하였는데 절차

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모두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함. 이러한 연구가 흥미로운 것은 행정 시스템과 서비스가 디지털화되는 현시점에서 이용자들이 불만족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범죄 피해의 종류에 따라 만족도의 차이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데, 발표자는 절차적 정의의 문제가 가장 큰 불만이기 때문에 범죄유형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2) 9월 8일

○ [8:00~9:15] Illicit drug use and offending 세션 참석

- 이 패널에서는 불법 약물 이용과 관련하여 성별차이 및 청소년 특성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중심으로 논의함. 청소년의 불법 약물 관여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지만 가장 큰 위험 요인은 가족과 이웃 관련 요인으로 나타남. 또다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약물 사용 지속성과 약화 가능성은 또래 관계, 여가시간, 자기조절 전략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약물 사용과 관련된 성별 차이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약물 사용에 대하여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타인이나 주변을 의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여성들은 밀매에 더 많이 가담하고, 스트레스 해소나 쾌락을 동기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여성보다 남성집단에서 비율이 높다고 설명함

Gender differences in positive gain

The t-test results evidenced in Table 4-10 demonstrate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ositive gain scores between the genders ($t = 3.346$, $p < .01$), with men having a significantly higher perception of positive gain from drug use than women.

Table 4-10 gender differences in positive gain

	Gender (mean/SD)		t	p
	Male	Female		
Positive Gain	(n=580) 2.76/.768	(n=571) 2.60/.745	3.346	.001**

* : $p < 0.05$; ** : $p < 0.01$; *** : $p < 0.001$

- [9:30~10:45] Data-led and Digital Policing: A Global Perspective 세션 참석
 - 이 패널은 노르웨이 연구위원회와 오슬로 메트로폴리탄 대학교가 지원하는 '알고리즘 거버넌스와 치안 문화'(AGOPOL)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브라질, 노르웨이,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독일에서 진행 중인 디지털 치안에 대한 민족지학적 연구로 구성됨. 앱, 소셜 미디어, 디지털 기술, 데이터 분석이 결합되어 24시간 내내 국민을 보호하는 치안 서비스가 소개되고, 프라이버시, 자유, 언론과 표현의 자유 등의 문제에 대하여 논의함. 또한, 디지털 치안이 가지는 특성인 효과성/효율성, 객관성/중립성과 대비되는 전통적인 경찰의 방식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의함
- [13:30~14:45] Methodologies in online settings 세션 참석
 - 이 세션에서는 오프라인 인터뷰를 대체할 수 있는 앱을 이용한 인터뷰, electronic snowball (e-snowball) sampling 설계와 활용 방법, 소셜미디어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와 윤리적 문제, 지루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 논의함. 지루함과 관련된 연구는 심심한 상황에 대한 전략적 행위가 청년들의 정의감이나 도덕성 수준과 관련이 있고 정신건강과도 깊게 연관이 있음을 설명함



○ [16:30~17:45] Digital Victimization and other issues 세션 참석

- 이 세션에서는 핀란드에서의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핀란드의 사법 시스템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연구, 사이버 범죄 피해자들의 범죄 인지와 회복력에 관한 연구, 유럽 범죄 예방 네트워크(European Crime Prevention Network, EUCPN) 활동과 2차 피해 예방 사례를 소개하는 연구가 발표됨

Ⅲ. 시사점

1. EUROCRIM 2023의 주요 토픽

- 69개의 토픽 중에서 패널 수가 많은 상위 토픽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수감자나 수감생활 등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피해자, 조직범죄, 금융범죄, 사이버범죄, 약물, 청소년 문제 등이 주요 관심 토픽임

패널 수 상위 10개 Topic	패널 수
Imprisonment, prisons, prison life and effects of imprisonment	19
Patterns and trends in victimization	15
cross national comparisons of Crime and justice	14
-Organized crime	13

-white color crime, organizational crime, corporate crime, financial crime	
- courts and sentencing and panel decision making - Terrorism and terrorism financing, radicalization, extremism	12
consequences of victimization	11
- Juvenile justice and children's rights - critical criminology - cyber crime	10
non-criminal justice responses to delinquency	9
- sex crimes, sex work and sex trafficking - homicide and violent crime - crime control and the immigration system - crime prevention - drug crime	8
community sanction	7

2. 가장 주목 받은 주제와 국제 공동연구의 필요성

- 발표 패널의 수가 가장 많은 토픽은 수감자와 피해자 관련 내용이었으나 가장 큰 발표장에 배정된 주제는 약물과 디지털 기술 관련 분야였음. 약물은 마약, 유통, 중독, 재범, 정신질환 등 세부 주제로 구분되어 진행되었으며 사회학이나 사회복지학 관련 연구자 참여가 많은 특성이 있었음. 디지털 기술과 관련해서는 범죄에 활용되는 것과 치안이나 범죄 예방에 활용되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방향으로 구분이 됨. 이번 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서 눈에 띄는 특성은 사례 소개뿐만 아니라 각 사례에 참여자들을 인터뷰하거나 설문조사를 활용한 경험적 연구가 많은 것임. 그리고 이러한 경험적 연구들은 지역적 또는 사회적 특성이 반영되므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많았음. 특히, 약물/마약, 사이버범죄, 소셜 미디어 문제 등은 국제 공동연구의 필요성이 세션에서 자주 언급되므로 연구기관 차원에서 국제 공동연구 기획 논의가 요구됨

[별첨 1]

국외출장계획서

○ 출장계획 개요

출장자			출장지	출장일정
성명	소속	직급		
이선형	형사법무디지털센터 AI·법정책팀	부연구위원	이탈리아 피렌체	2023. 9. 4. (월) ~ 2023. 9. 10. (일) (6박 7일)

○ 출장목적 및 필요성

■ 유럽범죄학회(EUROCRIM 2023 Annual Conference)에서 연구 결과 발표

- 2022년 수행한 자살 과제와 2023년 현재 수행중인 마약 과제의 데이터 분석 결과로부터 자살과 마약문제에서 약물사용의 관계를 발표함(발표제목: Characteristics and Illegal Distribution of Suicide-Related Substances in South Korea). 연구 결과 발표를 통해 자살 및 마약사용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연구 발전과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특히, 본 연구와 관련하여 보건 분야에서 자살 및 마약/약물사용 등에 대한 법무지원의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함
-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자살과 최근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마약류 관련 내용은 ‘일탈’이지만 ‘일상’과 관련이 깊다는 특성이 있음. 자살의 경우는 고인의 부채 및 금융 등 전문적 상담이나 법무사무소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 마약의 경우는 최근에 마약인지 모르고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법적 처벌과 관련된 상담이나 변호 요청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법무수요과 관련됨

■ 조사영역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 ‘법무수요조사’는 한국인들이 경험하는 특정 문제나 분쟁의 내용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방식을 조사하는 것으로 OECD의 ‘Legal Needs Surveys and Access to Justice (2019. OECD)’ 기반으로 설문지와 문제의 유형을 작성함. 문제의 유형에는 고용, 가족, 행정, 소비자, 지역사회, 토지 등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범죄피해나 형사사법분야는 포함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범죄 및 형사분야 포함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중간보고서 평가위원 의견)
- 본 과제는 연속과제를 기획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영역에서 일부를 선택하거나 제외하였던

영역을 포함시켜 특정 영역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려는 계획이 있음.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범죄피해조사와 차별화된 방식으로 조사영역과 내용의 개발이 필요하므로 법무수요와 관련하여 회복적사법, 피해자 지원, 청소년 문제 등 영역에 대하여 어떤 사법적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지 관련 세션 발표로부터 자료를 확인하고자 함. 본 학술대회에서의 정보는 차후 법무수요조사의 방향성과 문제의 유형별 범위를 확정하는 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음

■ 과제 개발을 위한 정보수집 및 네트워크 구축

- 마약이 한국에서 심각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가장 쟁점인 범죄가 된 것처럼, 현재 해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범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임. 본 학회에서는 다양한 범죄 관련 세션이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출장에서는 혐오범죄(Hate crime), 범죄두려움(Fear of Crime), 방법론(Methodologies in Criminology), 사이버범죄(Cybercrime)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혐오범죄는 코로나 이후 변화와 이민자 정책과의 연관이 있고, 최근에 발생한 신림역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범죄두려움을 선택하였고 방법론과 사이버범죄는 소속팀과 관련이 있어 포함함
- 본 학회는 모든 발표자가 진행기간 동안 모두 참석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다양한 social event를 기획하고 있어 연구자 간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함. 이를 활용하여 해외 연구자와의 협업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 출장계획(일정별로 가능한 구체적 기술)

■ 일자별 세부 일정

일자	날짜	세부일정	비고
1일차	9. 4. (월)	[출발] 인천공항 (23:30, 한국시각)	항공 1회 경유 후 로마 도착, 로마에서 피렌체 기차 이동
	9. 5. (화)	[도착] 이탈리아 피렌체 (17:00, 현지시각)	
2일차	9. 6. (수)	Panel 1, 2 참석 Welcome Reception 참석	상세 프로그램은 8월 20일 확정
3일차	9. 7. (목)	Panel 4, 6, 7 참석	상세 프로그램은 8월 20일 확정
4일차	9. 8. (금)	Panel 11에서 발표	상세 프로그램은 8월

일자	날짜	세부일정	비고
		Panel 13, 14 참석	20일 확정
5일차	9. 9. (토)	오전 세션 및 Closing Ceremony 참석 [출발] 이탈리아 피렌체 (15:00, 현지시각)	피렌체에서 로마로 기차 이동
	9. 10. (일)	[도착] 인천공항 (15:30, 한국시각)	

○ 출장자 역할

■ 이선희

- ‘Characteristics and Illegal Distribution of Suicide-Related Substances in South Korea’ 연구 내용 발표
- 혐오범죄(Hate crime), 범죄두려움(Fear of Crime), 방법론(Methodologies in Criminology), 사이버범죄(Cybercrime) 등 세션 참석
- 해외 연구 및 연구자 정보 수집

○ 기대 효과

- 수행한 과제 발표를 통한 연구 결과 확산에 기여
- 학술대회 참여를 통한 연구 동향 파악 및 자료수집을 통한 차년도 조사영역 및 과제 개발에 기여 가능
- 해외 학회 참석으로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기대

○ 소요예산(안)

(항공료 및 숙박비 여비규정 및 예산편성 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편성함)

■ 지급계정: 법무수요조사 > 여비

■ 소요예산:

- 항공료
 - 서울(인천) → 로마, 로마 → 서울(인천) ₩2,585,900 (₩2,585,900×1인)
- 기차
 - 로마 → 피렌체, 피렌체 → 로마 ₩166,923 (₩166,923×1인)

- 숙박비 (총 4박)
 - 피렌체 €609 (₩895,012, 4박×1인)
 - 식비 (총 5.8일)
 - 피렌체, 로마 \$343 (\$59×5.8일×1인, 기내식사 제공 식비 제외)
 - 일비 (총 7일)
 - 피렌체, 로마 \$210 (\$30×7일×1인)
- ※ 전도금(출장여비 선지급) 신청 항목: 일비, 식비